

강이야기 1
River & Culture



정해옥 | (주)도화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 전문
/ 우리협회 역사문화특별위 부위원장
(jhok88@dohwa.co.kr)

하천지명 유래 이야기 8

동진강(東津江)

동진강(東津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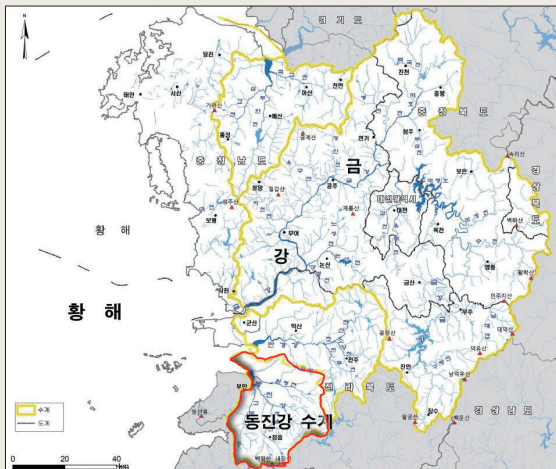
‘동진(東津)’은 옛 부안고을의 동쪽 나루를 뜻하며 조선 성종 때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을 보면 ‘동진은 부안현의 동쪽 16리에 있으며 벽골, 눌제의 물이 합치어 북으로 흘러 이 나루가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 정조 때 이금익이 지은 「연여실기술」에는 ‘부안 동진은 내장산과 노령북쪽 여러 냇물이 합쳐서 북으로 흘러 고부의 모천이 되며 서쪽으로 꺾어져 태인의 남천과 합해서 북쪽으로 흘러 부안의 동진이 된다. 금구 상왕산의 물은 김제의 벽골제가 되고 서쪽

으로 흘러 동진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여, 동진이라 부르게 된 유래와 발원지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부안군의 북동쪽에 동진면이 있다.

동진을 ‘통진(通津)’이라고도 불렀다. 이곳은 백제 부흥운동, 왜적과의 전투, 동학농민운동 등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벽골제에는 단야가 자원하여 제방축조의 제물로 희생되었다는 설화와 쌍룡전설 등의 이야기가 남아있다. 유역에는 정읍시 태인면의 신라 최치원이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 피향정(披香亭), 정읍시 덕천면의 황토현 전적지와 이평면의 전봉준 고택 및 하송리의 만석보터, 정읍천 벚꽃길, 벽골문화제, 단야뽑기 등이 있다.

전북 김제시에 소재한 벽골제는 모악산, 상두산 등에서 발원한 강물을 잘 갈무리하여 김제·만경강의 넓은 들에 물을 대기 위하여 백제 비류왕 때(330년, 신라 흘해왕 21년) 축조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둑이다. 김제시의 옛 이름인 ‘벽골’은 벼의 골 즉 벚골을 뜻한다. 따라서 벽골제란 ‘벚골의 둑’이다. 당시의 수문석주가 몇 군데 있고 비석과 제방은 사적 1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신라28대 원성왕 때, 서라벌에서 왕명을 받고 벽골제의 보수 책임을 맡기 위해 김제에 온 원덕량은 준수한 청년이었다. 원덕량은 김제 태수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밤낮으로 공사 감



동진강 수계



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인부를 들어서게 하여, 마치 곡식을 되로 되듯이 인원수를 파악하였다고 하여 '되배미(升田)'라고 하며 한 되배미는 500명씩 들어갔다고 한다. 이 되배미의 북쪽에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신탈미산(草鞋山)이라고 부른다. 이곳 또한 벽골제 보수공사 때 수많은 인부들이 진흙이 묻어 헤어진 짚신을 버려 그것이 쌓이고 쌓여이산을 이루었다고 한다.

독에 전념하였다.

김제 태수에게는 단야라는 예쁜 딸이 있었는데 단야와 원덕랑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또 서로 연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원덕랑은 고향에 월나라는 약혼녀가 있었기 때문에 단야의 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 무렵,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갔던 제방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이처럼 큰 공사에는 용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공사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독이 터졌다고 원덕랑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월내가 남장을 하고 김제로 원덕랑을 찾아왔다. 이 사실을 안 김제태수는 한 밤중에 월내를 보쌌하여 제물로 바침으로써 딸의 원도 풀고, 백성들의 원성을 무마하여 공사도 빨리 끝내자는 계약을 세웠다. 이러한 계약을 알게 된 단야는 자신이 희생되어 백성의 생명선인 제방이 완공되고 또 사모하는 원덕랑이 월내와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살인을 막는 효도가 된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자 죽음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심한 단야는 스스로 벽골제 제물이 되었다. 그 후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거대한 벽골제가 완공을 보았다고 전한다.

또한, 되배미와 신탈미산 유래를 보면, 벽골제 보수공사 때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수많은 인부들의 인원을 파악하기 위

그 외 명칭

▶ 통진 通津

전라북도 부안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부안)에는 통진을 '통진'이라 부른다고도 하였다. 벽골제와 놀제의 두 물이 흘러 이 나루가 된다고 하였다. '통진'은 황해로 통하는 나루터를 뜻하는 이름으로 풀이된다. 🌊



『동여도』(18첩 5면) 동진강 일대